

研究論文

##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김 이 순\*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舊 英陵과 舊 禧陵, 그리고 仁陵 석물<br>조성 | <참고문헌><br><국문요약> |
| III. 세종대왕기념관 석물 분석              |                  |
| IV. 순조 인릉 석물 분석                 |                  |

###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능지의 결정과 동시에 화강암을 부출(浮出)하여 석물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석물은 지속적으로 왕릉을 수호하며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왕릉의 조영(造營)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정성을 기울여 제작되었다. 정통성을 중시하던 조선 왕실의 석물은 오례의(五禮儀)의 규범에 따라 500여 년간 동일한 체제로 조성되었으나 화강암의 산지(產地), 석물의 크기와 양식, 조각의 세부 문양 등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왕의 유언, 능 조성자의 의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여건, 당대의 미술양식 등에 따른 것이어서 석물은 조성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간직하고 있으며, 석물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왕릉의 석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무석인상의 조형적 특징에 따라 시

\* 홍익대학교 부교수, 미술사 전공(yisoonk@naver.com).

기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문·무석인상 이외의 석물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 석물의 조성연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왕릉의 석물은 현재 석물이 세워져 있는 능이 조성될 당시에 제작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능을 천봉할 때 석물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지만 형편에 따라 원래 석물을 옮겨다 사용하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능의 석물을 이용(移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왕릉의 천봉과 추봉이 잦았던 반면 석물을 새롭게 조성할 여력이 부족하여 다른 능의 석물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왕실 무덤의 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고 석물의 귀속이나 편년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대왕 ‘구 영릉’ 석물이다. 현재 세종대왕기념관에 놓여 있는 석물은 ‘구 영릉’ 석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고에서는 문헌기록과 석물의 양식 분석을 통해, 세종대왕기념관의 석물은 ‘구 영릉(舊 英陵)’ 석물이 아니라 ‘구 희릉(舊 禧陵)’ 석물이고, ‘구 영릉’ 석물은 순조(純祖, 1790~1834)의 인릉(仁陵)에 놓여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sup>1)</sup>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는 문·무석인, 석마, 석양을 비롯해서 장명등의 체석(體石)과 망주석 주두(柱頭) 등 다수의 석물들이 놓여 있다(圖1). 이 석물들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3~74년에 현인릉 경내의 세종대왕 초장지(初葬地)로 간주되던 장소에 산재해 있던 석물들을 발굴하여 옮겨 놓은 것



〈圖1〉 세종대왕기념관 소재 석물, 청량리

1)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 놓여있는 석물은 ‘구 영릉 석물’로 알려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 이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구 영릉 석물’로 부르지 않고 현재 석물이 놓여있는 장소에 따라 ‘세종대왕기념관 석물’로 표기할 것이다.

인데,<sup>2)</sup> 대체로 규모가 큰 편이고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문·무석인의 대담하고 균형 잡힌 조형미는 조선시대 어느 왕릉의 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김구진 교수는 이 석물들이 구 영릉 석물임을 밝히는 논문을 두 차례나 거듭 발표했다.<sup>3)</sup> 그 후 서울특별시는 이 석물들을 신도비와 함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했고(<표 3> 참조), 현재 서울문화재 인터넷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져있다.

조선 초기 왕릉의 규모와 석물의 배치방식, 제작수법 등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양전척, 주척 등을 환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종 시대의 국력과 문화발달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sup>4)</sup>

그러나 세종대왕기념관의 석물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석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선 왕릉 석물의 양식변화는 일관성이 있게 전개되는데, 이 흐름에 비추어 세종대왕기념관의 석물을 살펴보면 15세기 전반기보다는 16세기 전반기의 양식에 해당된다. 특히 문석인은 현재 문종(文宗, 1414~1452)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의 현릉(顯陵, 1513)이나 중종(中宗, 1488~1544)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1491~1515)의 희릉(禧陵, 1537)에 놓여있는 문석인과 같은 유형이다. 오히려 조선 후기 양식으로 알려진 인릉의 주요 석물들이 조선 초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인릉 문석인의 인체비례, 소맷자락이 수직으로 내려온 표현, 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 등은 1457년에 조성된 덕종(德宗, 1438~1457) 경릉(敬陵)의 문석인과 흡사하다.

세종대왕기념관 석물과 관련이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종대왕 초상지로 알려졌던 장소는 장경왕후 희릉의 초장지였고 현재 인릉의 능역이 세종대왕 초장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sup>5)</sup> 문화재청의 재발굴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

2) 이 과정에 대한 정보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sejongkorea.org>) 참조.

3) 김구진, 「舊 英陵 神道碑와 石物에 대하여」, 『역사교육』, 18집(1975), 33~85쪽; 김구진, 「조선 초기 왕릉제도: 세종대왕 구 영릉 유적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25호(1979), 41~84쪽.

4)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 홈페이지(<http://sca.visitseoul.net/korean>).

5) 그간 풍수적인 측면에서 세종대왕의 초장지로 알려진 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오다가(장영훈, 『서울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0; 류재복, 「구 영릉지의 위치와 풍수입지 연구」, 대구한 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근에 안경호는 ‘구 영릉지’로 알려진 터는 ‘구

났다.<sup>6)</sup> 세종대왕 초장지에 대한 논문에서 안경호는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은 ‘구 희릉’ 석물이고 인릉 석물 중에서 ‘구 영릉’ 석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을 ‘구 희릉’ 석물로, 그리고 인릉 석물을 ‘구 영릉’ 석물로 간단히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석물들은 이미 원래의 장소를 떠났고 다른 능의 석물과 혼재해 있으며 일부는 분실된 적도 있기 때문에 석물들을 특정 능에 귀속시키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석물들이 발굴된 장소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구 영릉’과 인릉의 석물 관련 문헌기록을 검토하고 세종대왕기념관 석물과 인릉 석물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실제 ‘구 영릉’ 석물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실제 세종대왕 초장지의 석물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을 조선 초기에 제작된 ‘구 영릉’ 석물로, 그리고 인릉 석물을 조선 후기 양식으로 잘못 간주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조선 왕릉 석물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II. 舊 英陵과 舊 禧陵, 그리고 仁陵 석물 조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內谷洞) 현인릉 능역에는 1422년에 조성된 태종(太宗, 1367~1422)의 현릉과 1856년에 천장해온 순조(純祖, 1790~1834)의 인릉이 있는데, 이곳은 세종의 영릉과 장경왕후 희릉의 초장지이기도 하다(圖2). 한 능역 안에 두 능의 초장지가 있었고, 이 능역으로 인릉을 천봉하면서 주변에 묻혀있던 석물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세종대왕의 초장지를 발굴하였는데, 이때 위치를 잘못 선정하였고 그 주변에서 수습한 석물을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 놓고 ‘구 영릉’으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시기의 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는데, 지난 30여 년간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은 조선 초기의 ‘구 영릉’ 석물로 간주되어왔다.

희릉지’이고 세종대왕 초장지는 현재 인릉이 조성된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안경호, 「세종대왕 초장지(舊 英陵)에 대한 재론」, 『정신문화연구』, 31권 2호(2008), 151~171쪽.

6) 「세종대왕 첫 무덤 찾기 허탕 쳤다」, 《연합뉴스》, 2008년 3월 16일; 『세종대왕 초장지(舊 英陵) 지표 및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8년 3월 26일.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현인릉 능력과 관련된 구 영릉, 구 희릉, 인릉의 석물 조성에 대한 내용과 구 희릉의 석물 양식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현덕왕후 현릉(1513)의 석물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圖2〉 현인릉 능력

## 1. 구 영릉의 석물

구 영릉은 1446년에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가 승하하자 조성되었던 능으로, 석물은 이때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1450년에 승하한 세종대왕을 합장했다가 1469년(睿宗 1년)에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여주의 현제 위치로 천봉했다. 천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천봉할 때 원래의 석실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였고 석물 역시 옮겨가지 않고 수습하여 혈(穴) 자리 근방,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으스스한 ‘병처(屏處)’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실제로 구 영릉의 석실은 1856년에 이곳으로 인릉을 천봉하기 이전까지는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7) 세종은 수릉(壽陵) 형식으로, 생전에 태종의 현릉 옆에 무덤자리를 정했고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영릉을 조성했다. 쌍석실로 조성되었던 구 영릉의 석물의 수는 현재 여주 英陵과 같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世宗實錄』 28년(1446) 5월 8일 기사에서 언급한 “...석양(石羊)·석호(石虎)·석마(石馬)·석인(石人)은 두 광중의 예(例)로 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실현되었다면 태종의 현릉 석물처럼 현재 영릉 석물의 2배수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종실록』 五禮儀에는 한 광중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종대왕 조상지 말갈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 8) 『睿宗實錄』(1년, 1469년 2월 24일)에,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수운(輸運)하는데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구릉(舊陵)의 병처(屏處)에다 묻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또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천릉도감제조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구(舊) 영릉(英陵)의 석실은 파지 말고 편리한 대로 묻도록 하되, 흙을 덮어서 산의 모양과 같이 하고, 잡상(雜像)·비석(碑石)도 묻도록 하라’ 하였다”라는 기록(『睿宗實錄』, 1469년 7월 10일)이 있다.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이 구 영릉 석물일 가능성이 적은 첫 번째 근거는 김구진 교수가 이 석물들을 발굴했던 위치로 밝힌 장소가 이러한 실록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석물들의 수습 위치는 각 석물이 능에 원래 배치되었을 바로 그 자리였는데,<sup>9)</sup> 『睿宗實錄』에 기록된 대로라면 구 영릉 석물은 석물들이 원래 놓여있던 자리가 아닌 ‘병처’에 묻혀있어야 한다. 물론 천봉하면서 무거운 석물들을 한곳에 모아 묻지는 않았을 테지만, 적어도 석물을 세워두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현재 세종대왕기념관 석물들 중에는 병풍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선 왕릉에서 병풍석을 조성하지 않게 된 것은 세조(世祖, 1417~1468)의 광릉(光陵, 1468)에서부터였기 때문에 광릉 이전에 조성된 구 영릉의 석물 중에는 병풍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469년에 새롭게 조성된 여주 영릉에는 세조의 유교(遺敎)에 따라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다.<sup>10)</sup>

## 2. 구 희릉의 석물과 현덕왕후 현릉의 조성

현인릉 능역에는 1515년에 인종(仁宗, 1515~1545)의 생모이자 중종(中宗, 1488~1544)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희릉이 조성되었다. 당시의 장경왕후 지문(誌文)에는 “광주읍(廣州邑) 서쪽 현릉(獻陵)의 오른쪽 건좌(乾坐) 손향(巽向) 언덕”에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능을 조성하고 22년이 지난 1537년에, 능침에 돌이 들어 있고 물이 드는 흉당(凶堂)이라는 이유로 서삼릉으로 천장했다. 구 희릉의 조성과정과 석물에 대해 기록한 의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구 영릉과 구 희릉 석물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병풍석 존재의 유무(有無)이다. 즉 세조의 유교(遺敎)로 세조 이후에는 병풍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세조의 광릉(光陵)에서부터 구 희릉 이전에

9) 김구진, 앞의 논문(1975), 41~43쪽.

10) 『睿宗實錄』(1469년 1월 3일)에는, “세조대왕께서 원릉(園陵)의 석실(石室)이 유해무익하다 하여 유명(遺命)으로 석실과 사대석(莎臺石)을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릉에는 이미 유교(遺敎)를 좇았으니, 청컨대 영릉에도 또한 광릉의 제도(制度)를 따르소서”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 1469년에 새로운 능을 조성하면서 세조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11) 『中宗實錄』 10년(1515) 3월 23일: 대행왕비의誌文.

조성된 왕릉에서 병풍석이 설치된 경우는 성종(成宗, 1457~1494)의 선릉(宣陵, 1495년)뿐이다. 이 경우에도 연산군(燕山君, 1476~1506)은 세조의 유교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민했고 대신들과 타협한 끝에 석실을 빼고 병풍석만 썼다는 기록이 있다.<sup>12)</sup> 따라서 세종대왕기념관 석물에 병풍석 관련 부재가 한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광릉 이후에 조성된 석물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석물을 구 영릉 석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희릉에 병풍석을 설치했다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터인데, 현재까지 그러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구 희릉 석물의 조각양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현덕왕후 현릉의 석물이 있다(圖3). 문종(文宗, 1414~1452)의 비이자 단종(端宗, 1441~1457)의 생모인 현덕왕후가 승하한 해는 1441년이지만, 동구릉에 있는 현덕왕후 현릉은 1513년에 조성되었다. 즉 구 희릉의 조성 연대와 불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덕왕후 석물을 통해 구 희릉 석물의 조각양식을 짐작할 수 있다. 석물 분석에 앞서, 동구릉에 있는 현덕왕후의 현릉 조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덕왕후는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승하하였기 때문에 세자빈의 묘제(墓制)로 안산군 와리산(瓦里山)에<sup>13)</sup> 무덤이 조성되었



〈圖3〉 현덕왕후 현릉 전경, 1513년, 동구릉

다.<sup>14)</sup> 1450년에 문종이 즉위하면서 묘를 능으로 추봉하고 소릉(昭陵)이라 칭했으

12) 『燕山實錄』 1년(1495) 1월 1일 9번째 기사에 의하면 윤필상과 노사신의 제안으로 병풍석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나 『中宗實錄』 25년(1530) 8월 28일 2번째 기사에서는 國葬都監提調 정문형이 강하게 주장하여 병풍석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13) 현재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2-1(14블럭) 일진전기 앞 관우물지.

14) 현덕왕후 능의 조성과 관련된 『世宗實錄』(23년, 1441년, 8월 8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하연(河演)은 의논하기를, ‘석마는 고제(古制)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능실에 모두 석마들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하고, 민의생·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현릉, 1420]에는 석인 넷, 석양 넷, 석호 넷, 석망주 둘만 있고 석마는 없으며, 정소공주(貞昭公主, 세종의 장녀)의 묘[1424]에는 석인 둘, 석양 둘, 석호 둘만 있사오니, 이제 석마는 세우지 말고

며, 석물은 단종이 즉위한 후에 설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그러나 이 석물들이 현재의 현릉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조는 1457년 6월에 현덕왕후의 왕후를 추폐(追廢)하고 평민으로 격하시켰으며 능을 파헤쳐 바닷가로 천장했는데, 이때 석물도 함께 없어졌을 것이다.<sup>16)</sup> 1513년 중종8년에 현덕왕후는 복위되었고, 『중종실록』에는 현릉의 조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천릉도감(遷陵都監)의 송일·김응기·신용개 등이 아뢰기를, “듣건대 소릉은 원래 내재궁(內宰宮)만으로 장례하고 또 천장(안산에서 바닷가) 할 때에 회삼 물도 다지지도 않았단 하니, 필시 관도 없고 해골만 있을 것입니다. 무릇 천장 하는 사람들은 해골이 있으면 해골만 거두어 장례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여 행함이 어떠하리까? 그러나 해골도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리까? 대저 신도(神道)는 다 허(虛)를 상징함이니, 만약 해골이 없으면 혼(魂)을 모셔 엄장(嚴葬)함이 어떠하리까?<sup>17)</sup>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도 중종8년에 현덕왕후를 추복(追復)하고 우의정 송일(宋軼)을 산릉총호사로 삼아 현릉을 조성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현덕왕후 현릉의 석물은 1513년에 조성되었을 것이고, 이는 조선 왕릉 중에서 구 희릉(1515)과 가장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구 희릉 석물 양식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sup>19)</sup>

석양과 석호 각각 하나씩을 더하게 하여, 정소공주의 묘제(墓制)와 구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 참고로, 이미 사대부 묘에서는 석마를 세우고 있었음을 『世宗實錄』(6년, 1424년 12월 12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때 왕실 무덤에서 석마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의 기록대로 실행되었다면, 1441년에 현덕왕후의 묘에서 왕실 무덤으로는 처음으로 석마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5) 『端宗實錄』(1년, 1452년, 9월 21일)에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소릉(昭陵)의 잡상(雜像)은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설치하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16) “처음 소릉이 폐해진 뒤에 바닷가로 옮겨서 장사지내고는 제사지내고 수호(守護)하는 일을 폐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단지 무덤의 봉분만 있었으므로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하였던 것이다. …안산(安山) 사람이 말하기를…민가에서 집을 지을 적에 폐해진 능에서 나온 석물을 가져다 쓴 사람은 반드시 병을 앓았으며…”라는 기록(金安老,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국역 대동야승(大東野乘)』 3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463~464쪽)이 있어, 소릉의 석물은 이미 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7) 『中宗實錄』 8년(1513) 4월 13일.
- 18) 『練藜室記述』 4卷, 文宗朝故事本末, 「소릉(昭陵)의 폐위와 복위」.



### 3. 인릉의 조성

조선왕조 제23대 왕 순조가 1834년 11월 13일에 승하하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仁祖, 1595~1649)의 구 장릉(舊 長陵) 좌강(左降)에 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25일 순조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지시로 조성작업이 중단되었고, 재간심을 거쳐 현재 인조 장릉의 좌강을 택하여 3월 9일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4월 23일에 인릉을 완성했다. 그러나 곧 풍수지리상의 불길론이 대두되었다. 『철종실록(哲宗實錄)』 6년(1855) 1월 18일 기사에 “인릉의 능침을 봉안한지 21년이나 되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의(外議)가 서로 논쟁하고 있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송구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머님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하교하셨지만, 일이 지극히 중차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경(卿) 등과 상의하여 결정해서 행하려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듬해 1856년에 현재의 위치인 서초구 내곡동 현릉 서쪽 언덕으로 천봉했다. 1857년 8월 4일에는 창덕궁 양심각에서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하여 같은 해 12월 17일에 인릉에 합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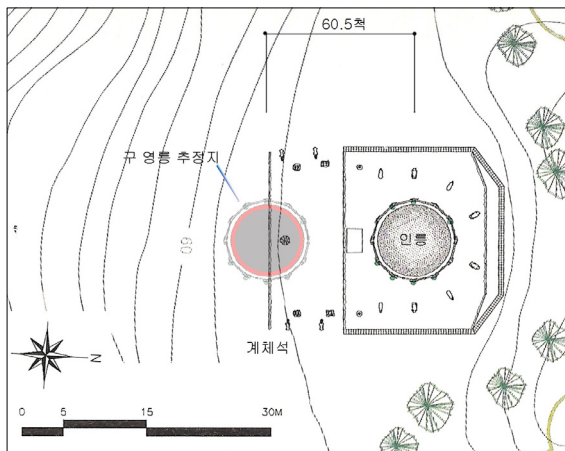
1856년 인릉을 천봉할 때 새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세종대왕 초장지를 사용했다. 당시 인릉의 새 능역을 조성하는 과정을 지켜본 이조참판 이윤희(李裕元, 1814~1888)는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상히 기록해두었다.

인릉을 교하로부터 광주(廣州)에 천봉하였는데, 곧 영릉의 구광(舊塋)이다. 그 일을 시작할 때 봉심을 해 보니, 광중(壙中)은 석곽(石槨)을 썼고, 천개(天蓋)는 합봉(合縫)한 곳이 없이 돌 하나를 순전히 썼고, 은정(銀釘)은 쇠로 주조하였고, 곽(槨) 안에는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곧 찬궁(欖宮)의 제도였다. 위쪽은 운기(雲氣), 아래쪽은 철망(鐵網)으로 2층을 만들어 지기(地氣)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벌레나 뱀 따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화법이 신동(神動)하고 채색이 새것과 같았으며, 그 안에는 수골(獸骨)이 있었다. 대체로 고려 때의 풍속에는 버려진 광중

19) 현릉의 석물을 소릉(1441)의 조성연대로 판단하고 세종기념관 석물들과 비교하여 이 석물들을 구 영릉 석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추론이다. 배운수, 「朝鮮時代 王陵 石獸에 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15~17쪽.

에다가 소나 말의 뼈를 던져서 더럽히곤 하였는데 국초(國初)의 일은 고려 말과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광(本曠)을 무너뜨리고 다시新光(新曠)을 만들었는데, 식자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sup>20)</sup>

비교적 긴 지문을 여기에 인용한 이유는, 그간 학계와 문화재청에서 세종대왕 초장지를 발굴하려고 했으나 이미 1856년 인릉을 천장할 때 훼손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이다.<sup>21)</sup>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에도 세종대왕 초장지에 인릉을 조성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현재 인릉의 장명동 앞, 즉, 초계와 중계 사이에 계체석이 놓인 자리가 구 영릉의 광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圖4).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버린 터를 천봉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영릉을 천장한지 300여년이 지났으므로 땅의 길운(吉運)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22)</sup> 능을 조성하면서 봉표 근처에 묻어두었던 구 영릉 석물들을 발견하였고 이들을 사용했던 것이다.



〈圖4〉 세종대왕 초장지 위치 분석도

현재 인릉의 석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릉 조영(造營)은 1856년 3월 11일에 시작했고 6월~8월에는 쉬었다가 9월에 재개해서 10월 15일에 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궤 제1권의 시일(時日)과 제2권의 대부석소 일록(日錄)에서 석물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23)</sup>

- 20) 이유원, 『春明逸史: '仁陵의 遷奉', 『林下筆記』, 26권(1871); 『국역 굴산 임하일기』 6권(한국학술정보, 2008), 406~407쪽.
- 21) 인릉은 1855년 초에 휘경원과 수릉과 함께 천봉이 계획되었는데, 휘경원과 수릉은 1855년에 천봉했고 인릉은 다음해에 천봉했다. 인릉의 천릉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릉, 후릉, 창릉, 희릉, 광릉 능역을 모두 검토한 후에 현릉 능역에 있는 구 영릉지로 결정했다.
- 22)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권, '전교' 병진 2월 20일.

<표 1>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대부석소 일록정리

월	일	내용	비고
1856년 3월	11	터파기 시작, 구 희릉 석물 굴취시작	
	12	혼유석1, 문석인2, 무석인2, 장명등1 굴취	구 희릉 석물로 추정
	13	석양2, 석마1, 장명등 개석1, 망대구1 굴취	구 희릉 석물로 추정
	21	봉표 아래에서 병풍석, 면우전석, 장명등1 노출	구 영릉 석물로 추정
	25	구 희릉과 봉표 근처의 석의 사용 전교	
	29	구 수릉(綏陵) 소재 석물 잇달아 운입	
4월	3	혼유석1, 문석인2 노출	구 영릉 석물로 추정
	15	석주3, 동자석3, 족석3 새로 제작(裁作)	
	16	면전석2, 동자석3, 족석5 새로 제작	
	17	석양2, 우전석3, 동자석4 새로 제작	
	18	석마2, 면전석5, 족석4 새로 제작	
	19	혼유석 마정시작, 무석인2 노출	구 영릉 석물로 추정
	20	우전석3, 석주5, 동자석2 새로 제작	
	25	면전석2, 석주4 새로 제작	
	26	석마1, 면전석3 새로 제작	
	27	구 희릉 석양2, 석마2 운입	
	28	우전석4 새로 제작	
5월	1	구 희릉 장명등 개석1, 망대구1 운입	
	17	혼유석 마정 완료, 망주석2 새로 제작	
9월	17	난간하전석 설치 시작	
	23	후면 난간석 설치	
	26	문무석인 설치	
	30	양호마석 설치	
10월	12	혼유석 안배	
	13	난간석 완료	
	14	장명등, 망주석 건립	
	15	완료	

흥미로운 점은 능의 터파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구 희릉 터에서 문·무석인상 각 2점과 혼유석 1점, 장명등 1점, 석양 2점, 석마 1점 등의 석물을 파냈고 문조(文祖, 1809~1830)의 구 수릉(舊 綏陵)의 석물도 옮겨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릉

23)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奎13706-v.2, 哲宗7年(1856), 대부석소 의궤, 도설(圖說).

천봉을 결정할 당시에는 구 희릉과 구 수릉의 석물을 이용(移用)하려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종대왕 초장지에 혈(穴)자리를 잡고 터파기를 하면서 뜻밖에 구 영릉의 석물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굳이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가 넘는 장소에 있는 구 희릉 석물을 옮겨 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圖2 참조). 실제 인릉 석물의 조각양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기록은 일단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석물들 중에 문·무석인상 같은 주요 석물들이 구 영릉 석물일 수 없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

### III. 세종대왕기념관 석물 분석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는 문석인과 무석인 각 2점, 석마와 석양 각 2점, 석호 4점, 장명등 체석(體石) 1점, 망주석 주두 1점, 혼유석 부분 1점, 고석 1점, 난간석 주 7점 등이 놓여 있는데, 각 석물들의 크기, 장식문양, 조각수법 등을 통해 조성 연대를 추정하고자 한다.

#### 1. 문석인의 특징

문석인은 268cm 정도로 키가 비교적 큰 편이고 장대한 체구로 구성되어 있다.<sup>24)</sup> 머리가 크고, 몸의 윤곽선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에 가까워 조각수법이 경직되어 보이나 입체감이 분명하고 대담하게 표현되어 신상적(神像的)인 느낌이 난다(圖5). 참고로 조선왕릉 석물조각의 흐름은 규모와 조각수법에 따라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다(圖6). 제1기는 태조(太祖, 1335~1408) 건원릉(建元陵, 1408)에서부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된 성종(成宗, 1457~1494)의 선릉(宣陵, 1495) 이전까지의 문·무석인으로, 석인상의 크기가 평균 240cm 정도이고 다른 시기 문석인에 비해 얼굴이

24) 김구진 교수의 앞의 논문(1975)에서 문석인의 크기를 각각 315cm와 319cm로 기록하였고(70쪽), 이 논문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은 이 수치를 따랐다. 그러나 필자가 실측한 치수는 약 268cm였다. 김 교수의 오류는 석상 하단의 대석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석상을 세울 때 대석 부분은 땅 속에 묻히기 때문에 실제 석물 치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작은 편이며 몸의 측면선이 부드러워 전체적으로 실제 사람의 분위기가 난다. 제2기는 성종의 선릉에서부터 1600년에 조성된 선조(宣祖, 1552~1608)의 원비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 목릉(穆陵, 1600)까지의 문·무석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키가 300cm 내외로 크고 인체비례가 3.5~4등신 정도로 머리가 커져서 장대한 느낌이 나며 조각수법이 대담하고 입체감이 살아있다. 1608년에 조성된 선조의 목릉(穆陵) 이후부터<sup>25)</sup> 18세기 전반기까지의 석물들은 제3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각양식이 정형화되었던 시기이다.<sup>26)</sup> 제3기에서도 17세기의 석인상은 250cm 내외의 크기를 유지했지만 점차 규모가 작



<圖5> 세종대왕기념관 문석인, 청량리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건원릉, 1408년	희릉, 1561년	명릉, 1701년	응릉, 1789년

<圖6> 조선 왕릉 문석인 시기 구분

- 25) 목릉은 선조의 원비인 의인왕후의 목릉이 1600년에 조성되었고 선조의 목릉은 1608년, 계비인 인목왕후의 목릉은 1632년에 조성되었다. 1600년에 조성된 목릉의 문석인은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16세기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와 인목왕후의 문석인에서는 이미 옷 주름과 자세에서 17세기적인 요소가 나타나며 머리가 작아지기 시작했고 의습의 표현에서 정향화가 나타났다. 또한 석수(石獸)와 기타 석물의 양식도 그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 26) 제3기를 다시 17세기와 18세기 전반기로 나눌 수 있다. 17세기 석인상은 250cm 내외의 크기로 비교적 큰 편이지만 조각양식에서 16세기의 석인상의 특징인 300cm가 넘는 크기와 대담한 입체감에서 느껴지는 장대함, 큰 머리와 주먹코에서 느껴지는 신상적인 표현이 사라졌고 의습 표현이 정형화되었으며, 문·무석인상 이외의 석물들의 조각양식에서 도식화가 두드러진다.

아저서 18세기에는 평균 180cm 정도의 작은 크기의 문·무석상이 조성되었다. 제4기는 다시 의례를 정비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했던 영조(英祖, 1694~1776) 때 조성된 능에서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조선 말기의 다양한 양식이 포함되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대체로 제3기의 석인상보다 얼굴이 작아지고 키가 커졌으며 입가에 미소가 나타나는 등 사실적인 요소를 수용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면, 세종대왕기념관 문석인의 3.5~4등신의 인체비례나 대담한 입체감 표현은 제1기가 아닌 제2기 조형적 특징으로, 대략 15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임진왜란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 또한 홀을 잡고 있는 모습 역시 제1기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제1기의 문석인은 건원릉의 문석인에서처럼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하박의 각도가 사선으로 올려져있으면서도 홀의 상단이 턱에서 떨어져 있다. 반면 제2기에는 세종대왕기념관 문석인의 모습처럼, 팔의 하박의 각도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어깨를 움츠리고 있어 홀이 턱에 닿아있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문석인도 무석인처럼 주먹코로 표현되었으며, 홀을 든 손 아래쪽으로 U자형 옷 주름이 있고 발등과 옷 사이 경계선이 뚜렷하게 표현된 점 등은 1513년의 현덕왕후 현릉, 1537년의 장경왕후 희릉, 1545년의 인종(仁宗, 1515~1545) 효릉(孝陵)의 문석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16세기 전반기 문석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圖7). 그중에서 현덕



<圖7> 16세기 전반기 문석인 비교

왕후 현릉 문석인의 모습은 세종대왕기념관의 문석인과 매우 흡사하며, 특히 홀과 수염을 연결하고 홀을 환조형식으로 가슴에서 떨어지게 조각한 경우는 조선 왕릉 전체에서 이 두 문석인에서만 나타난다(圖8).

구 희릉의 문석인 크기는 산릉 의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구 희릉이 조성된 16세기 전반기 문석인의 크기는 대부분 300cm가 넘으며 현재 희릉(1537)의 문석인은 318cm 정도로, 이는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릉의 석인상보다도 큰 편이다. 한편,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의 문석인 크기는 키가 8척3촌(약257cm)이지만, 15세기에



〈圖8〉 문석인 세부 비교

조성된 문석인들의 키를 실측하면 대개 240cm내외다. 따라서 268cm 크기의 세종대왕기념관 문석인은 16세기의 석물로서는 작은 편이지만 조선 초기 문석인보다는 큰 편이고 규모가 방대하여 제2기의 석물로 분류할 수 있다.

## 2. 무석인의 특징

무석인은 문석인과 달리 모든 왕릉에 설치되지는 않았고, 남한에 있는 조선 왕릉 40기 50릉 중에서 34기 43릉에만 조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무석인의 크기와 조각양식은 문석인의 흐름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세종대왕기념관의 무석인도 구 영릉이 조성되었던 초기 무석인의



〈圖9〉 무석인 비교

유형과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며 제2기 무석인의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圖9).

세부 표현에서도 제2기의 특징이 보인다. 우선, 얼굴에서 안경을 쓴 것 같은 부리부리한 눈과 깊게 주름 잡힌 미간, 정면에서 콧구멍이 드러나는 주먹코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람한 형상은 희릉 무석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 문

양에서도 16세기 무석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운문(雲紋)차양형 투구의 귀가리개와 앞 차양, 귀의 모양, 칼의 형태, 경갑(脛甲), 배대(背帶), 소매의 표현은 현덕왕후 현릉과 현재 희릉 무석인의 양식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투구 정수리 부분의 상모(象毛)의 깃털이 짧고 투구의 차양이 위로 젖혀진 점, 귀가리개 아래 귀가 노출된 점, 칼집 위에 드리워진 휘장,<sup>27)</sup> 그리고 정강이의 경갑이 숨겨진 점은 희릉의 무석인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투구의 드림이 내려져 있는 점이나 뒷면의 배갑 상단이 둥근 형태인 점, 그리고 갑옷 하단의 털 장식 끝이 뒤집어지게 묘사한 점은 현릉 무석인과 흡사하다. 또한 측면에서 45도 상향으로 날리는 소맷자락의 표현, 그리고 그것에 90도 각도로 허리에 채워진 칼집은 희릉·현릉·세종대왕기념관 무석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전화(戰靴)의 장식과 경갑의 노출 정도에 따라 무석인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무석인은 모두 발목 부분의 전포(戰袍)를 들어 올려 그 안에 있는 경갑을 드러냈다. 그러나 세종대왕기념관 무석인의 경갑은 전포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현재 희릉(1537)과 인종의 효릉(1545)의 무석인에 나타나고 있어 이 무석인들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또 다리 사이에 전상갑(前裳甲)이 드리워진 것도 1504년에 조성된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 경릉(敬陵)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종대왕기념관 무석인은 구 영릉 석물로 보기 어렵다.

### 3. 석마의 특징

조선 왕릉의 석마는 중국 무덤의 석마와 달리, 사람이 탈 수 있는 마구나 말을 모는 마부의 상이 조각되지 않고 말만 단독으로 조각되었다. 석마는 현재 모든 조선 왕릉에서 문·무석인과 함께 석마가 세워져 있지만 건원릉과 현릉이 조성될 당시에는 석마가 조성되지 않았다가 1440년대 세종 때 추가되었다.<sup>29)</sup>

27) 칼집 위로 휘장이 드리워진 형식은 소혜왕후 경릉(1504)에서 처음 나타난다.

28) 현릉 무석인은 초기 무석인들과 같이 경갑이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릉의 무석인에서 조선 초기 양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은 능역에 조성되어 있는 문종의 석물(1452)과 닮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선 왕릉 석물의 흐름을 보면, 조성 시기에 따른 변화와 함께 같은 능역의 석물들이 서로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석마는 석인의 주변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어서 석마의 양식으로 조성 시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하면 말의 머리와 몸의 비례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대에 조성된 건원릉과 현릉 석마는 몸과 머리 길이가 3.2대 1 정도의 비례인데, 희릉 조성시기의 현덕왕후 현릉과 희릉의 석마



석마, 현릉, 1422.

석마, 희릉, 1537.

<圖10> 석마 비교

의 비례는 2.5대 1정도이다(圖10). 세종대왕 기념관 석마는 2.5대 1 정도의 비례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圖11).

또한 조선 왕릉 석마는 다리 사이가 뚫려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막혀 있다.<sup>30)</sup> 세종오례의에 기록된 대로 다리 사이의 막힌 부분에 초형(草形)을 부조로 새겼는데, 이 초형의 종



<圖11> 석마, 세종대왕기념관

류와 표현양식으로 석마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2점 석마의 초형은 현재 인릉 석마 4점 중에서 한 점의 석마 초형과 흡사하다. 이는 이 석마들이 구 영릉이 아닌 구 희릉 석물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29) 세종23년(1441) 왕제자빈(문종 비 현덕왕후)의 묘에 석마를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며 “선왕(先王)의 능실(陵室)에도 석인(石人) 둘, 석호(石虎) 둘, 석양(石羊) 둘, 망주(望柱) 둘이 있고 석마(石馬)가 없사오니, 이번 세자빈의 묘(墓)에도 역시 석마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世宗實錄』 23년(1441) 8월 8일. 이어 다음해(1442) 5월 21일 산릉 수리 도감을 설치하여 현릉·건원릉·제릉을 수리하게 하는데, 『世宗實錄』 24년(1442) 5월 21일) 10월 18일에 왕제자(문종)에게 명하여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을 불러 능실(陵室)에 석마(石馬)와 석호(石虎)를 세우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世宗實錄』 24년(1442) 10월 18일.

30) 초기의 제릉, 건원릉, 현릉, 후릉의 석마는 다리 사이가 전후로는 막히고 좌우로만 뚫리며, 세종 이후에는 인조 장릉, 원종 장릉, 인목왕후 목릉, 순조 유릉에서 예외적으로 다리 사이를 뚫었다.

서는 인릉 석물에 대한 언급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 4. 석양의 특징

세종대왕기념관의 석양은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새끼를 뱀 듯이 배가 불룩하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강하게 표현되었다(圖12).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특징은 석마와 마찬가지로 제2기 양식이며, 또 조선 초기 석양은 대개 고개를 들고 있으나 세종대왕기념관의 석양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구 영릉에 놓였던 석물로 보기 어렵다. 또 조선 초기에는 석마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석양 역시 다리 사이가 뚫려 있으나 세종대왕기념관 석양은 다리 사이가 막혀있으며 그 위에 수선화류의 초형이 새겨져 있다(圖13). 다리 사이가 막히고 고개를 숙인 자세는 문종 현릉(1452)의 석양과도 비슷하지만 뿔의 입체감과 전체적으로 살이 비대하게 찢 정도는 현덕왕후 현릉의 석양에 더 가깝다.



〈圖12〉 석양, 세종대왕기념관



〈圖13〉 圖12 초형 세부

#### 5. 석호의 특징

조선 왕릉에는 4점의 석호가 배치되었지만 현재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는 석호가 한 점도 없다. 김구진 교수에 따르면, ‘구 영릉’의 동편에 설치되었던 1쌍은 발굴 이전에 도굴되었다가 회수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앞에 놓여있고, 나머지 1쌍은 1977년에 여주 영릉의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인

세종전 앞으로 옮겨 갔다 (圖14).<sup>31)</sup>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4점의 석호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圖14> 단국대 박물관 및 세종전 석호

<표 2> 단국대 박물관 및 세종전 석호 분석

구 분		단국대 석주선 박물관 석호	여주 세종전 석호
크기(cm)	동	107x154x64	102x166x65
	서	동일 크기	105x156x79
꼬리 방향		우측	좌측
눈의 형태		눈꼬리 올라감	둥근 눈
귀의 방향		전면	측면
콧미간		겹 주름	홀 주름
눈미간		넓음	좁음
입모양		수평	입꼬리 내림
보존상태		양호	풍화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4점 석호의 생김새가 약간씩 다르지만 석물의 크기, 입체감의 처리나 해부학적인 묘사 및 몸의 비례 등에서 같은 능의 석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또 전체적으로 덩어리 느낌을 잘 살린 점은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다른 석물들과 비슷하고 화강암의 종류 역시 같기 때문에 같은 능에 설치되었던 석물로 여겨진다.

31) 김구진, 앞의 논문(1975), 73~75쪽.

## 6. 장명등의 체석(體石)

세종대왕기념관에는 8각 장명등의 체석만 놓여 있다(圖15). 이 체석의 격석(隔石)에는 안상(眼象)이 조각되었고 안상 밑에 연주(聯珠)가 새겨져 있으며 화창(火窓)의 내면 귀퉁이에는 턱을 붙여 놓은 구조는 희릉 장명등의 체석에도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圖16). 따라서 세종대왕기념관의 체석 역시 구 희릉의 석물로 추정되며, 현재 결실(缺失)된 개석(蓋石)은 뒤에 설명하는 인릉의 장명등과 관련이 있다.



〈圖15〉 장명등 체석,  
세종대왕기념관



〈圖16〉 장명등, 희릉, 1537년,  
서삼릉

## 7. 망주석의 주두(柱頭)

세종대왕기념관에는 망주석 2점 중에서 한 점의 주두만 남아 있으나 다행히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圖17). 주두의 형태에서 끝이 뾰족한 원수(圓首) 아래에 사슬모양으로 연결된 운두(雲頭)가 있고 그 아래 두 줄 떠사이로 간격 없이 이어진 연주가 둘러져 있다. 그 아래로 염우(廉隅)의 상단이 남아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형태의 망주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염우의 맨 윗부분에는 3단의 파상형 보상화 무늬로 장식되었고 이어 운채(雲彩)가 새겨져 있다. 염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문종 현릉(1452)의 망주석인데, 현릉의 망주석 염우에는 수평 띠가 두 줄이다. 이 시기 염우는 아래 위의 직경이



같은 원통형이고, 15세기 말부터 기둥의 하단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수평 띠 사이에 연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성종 선릉(1495)에서부터이다. 이러한 망주석 형태의 변화와 흐름에서 보면, 세종대왕기념관의 망주석은 조선 초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조선 왕릉 중 망주석이 없는 경릉(1457)과 공릉(1462)을 제외하고, 이 망주석과 가장 가깝게 비교될 수 있는 예는 현재 희릉의 망주석이다(圖18). 따라서 세종대왕기념관에 놓여 있는 망주석의 주두 역시 구 희릉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圖17〉 망주석 주두,  
세종대왕기념관



〈圖18〉 망주석 주두, 희릉,  
1537년

## 8. 난간석

### 1) 난간석주

세종대왕기념관에는 7점의 난간석주가 놓여 있다. 김구진 교수는 구 영릉 발굴 기록에서, 7점의 난간석주 중 5점은 구 영릉 터에서 나오고, 2점은 현릉 하단에서 발견되었는데, 현릉 하단에서 발견한 2점은 구 영릉의 석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난간석주들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우선, 구 영릉 터에서 나왔다는 5점(A타입)은 주두의 연주(聯珠) 위와 아래의 양련(仰蓮)과 복연(覆蓮)의 연꽃 장식이 모두 단엽(單葉)이며, 석주 아래 연엽 가운데 부분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다(圖19). 이러한 유형의 난간석주는 바로 현덕왕후 현릉의 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릉 하단에서 발견했다는 2점(B타입)의 난간석주는 연주를 중심으로 위는 단엽의 양련 형태이고 아래는 복엽(複葉)의 복련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圖20). 그리고 연꽃잎의 퍼진 선의 끝이 둥글게 말려 있으며, 석주 하단의 연엽 사이 가운데 부분이 굽다. 이러한 양식은 건원릉과 현릉의 석주와 동일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석주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현릉 석주로 제작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거나 세종24년 수리시에 교체 폐기된 것일 수도 있다.<sup>32)</sup> 또 실제 구 영릉의 석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인릉을 조성하면서 불필요한 구 영릉 석물을 옮겨 묻었거나 구 영릉을 조성할 때 석재를 다듬은 대부석소를 현릉 앞에 설치했었다면 구 영릉의 난간 부재일 가능성도 있다.



〈圖19〉 난간석주 비교



〈圖20〉 난간석주(현릉 하단 발굴) 비교

32) “...마침내 산릉 수리 도감(山陵修理都監)을 설치하여 신개(申概)와 이백강(李伯剛)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하연(河演)·이천(李薦)·이정녕(李正寧)·김종서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을 제조(提調)로 삼고, 또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각기 2인씩 두게 하였다.” 『世宗實錄』 24년(1442) 5월 21일.

## 2) 죽석

죽석(竹石)으로 추정되는 석물이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 있으나 장식이 없어 양식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최초 발굴 보고서 내용대로, 소위 ‘구 영릉 터’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난간석주 2점(B타입)과 함께 현릉 부근과 인릉 하단에서 발견한 석물이라면 구 희릉의 석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 9. 혼유석

혼유석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직육면체의 돌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고석(鼓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릉 석물 중에서는 가장 크며 무게가 10톤이 넘는 경우도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석상이라고 부르다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혼유석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지만 의궤에는 속명(俗名)으로 병기(併記)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혼유석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형태는 평평한 육면체이지만 윗면은 연마하여 광택을 내었다. 세종대왕기념관의 혼유석은 파손되어 일부분만 남아있다. 혼유석은 특별한 조형적 특징이 없어 시기 구분이 어려운데, 세종대왕기념관 혼유석 파편의 화강암 종류가 다른 석물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 희릉의 석물로 여겨진다.

고석은 표면의 귀면 조각 양식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sup>33)</sup> 세종대왕기념관에 놓여있는 고석의 귀면은 윤곽이 원형이며, 눈썹이 강조되어 눈 같아 보이고 조각 두께가 일정하다(圖21). 고석의 상·하단에는 연주(聯珠)가 장식되어 있는데, 역시 현덕왕후 현릉의 고석과 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다.



〈圖21〉 고석, 세종대왕기념관

지금까지 조선 왕릉 석물의 양식의 흐름 속에서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의 석물들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구 영릉이 조성된 15세기 전반기의 석물들보다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입체적인 덩어리 표현이 대담하

33) 鬼面은 나어두(羅魚頭)라고 불리기도 하며, 『弘齋全書』에는 도철(獐螯)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양의 종류와 조각수법 역시 16세기 전반기의 왕릉 석물과 같은 계열인데, 특히 1513년에 조성된 문종의 비 현덕왕후 현릉의 석물과 흡사하기 때문에 현인릉 능역 안에 1515년에 조성되었던 구 희릉의 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3> 내용과 같다.

<표 3> 세종대왕기념관 석물 및 단국대와 세종전 석물

	관리번호	명 칭	오류 정정
1	서울시 유형문화재 42-1호	세종대왕 신도비	구 영릉
2	서울시 유형문화재 42-2, 3호	문관석인상1, 2	구 영릉 → 구 희릉
3	서울시 유형문화재 42-4, 5호	무관석인상1, 2	구 영릉 → 구 희릉
4	서울시 유형문화재 42-6, 7호	석양상1, 2	구 영릉 → 구 희릉
5	서울시 유형문화재 42-8, 9호	석마상1, 2	구 영릉 → 구 희릉
6	서울시 유형문화재 42-10호	장명등	구 영릉 → 구 희릉
7	서울시 유형문화재 42-11호	망주석	구 영릉 → 구 희릉
8	서울시 유형문화재 42-12호	혼유석	구 영릉 → 구 희릉
9	서울시 유형문화재 42-13호	고석	구 영릉 → 구 희릉
10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	석호 2점	구 영릉 → 구 희릉
11	여주 영릉관리소 세종전	석호 2점	구 영릉 → 구 희릉

그렇다면 세종대왕 초상지의 석물은 사라진 것일까? 인릉의 조성과정을 기록한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에 밝혀져 있듯이(<표 1> 참조) 세종대왕 초상지에 위치한 인릉의 석물들 중에 구 영릉의 석물들이 섞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인릉의 석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 IV. 순조 인릉 석물의 분석

인릉에는 여느 왕릉과 마찬가지로 난간석과 석양과 석호 각 2쌍, 혼유석 1점, 망주석 1쌍, 장명등 1점, 문·무석인 각 1쌍, 석마 2쌍이 설치되어 있다(圖22). 본 장에서는 현재 인릉에 배치된 석물들을 분석하여 제작연대를 추정하고 구 영릉의 원래 석물의 행방을 추적하고자 한다.



## 1. 석물에 대한 문헌 기록

인릉의 석물은 “생동감 있는 표정과 힘차고 활달한 조각 기법, 이목구비의 표현 등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조선 후기의 석물조각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34)</sup> 그러나 대부분의 석물은 천봉 당시에 구 영릉의 석



<圖22> 인릉 전경, 현인릉

물을 조각하여 배치한 것이고 순원왕후를 합장할 당시에 일부 석물을 교체했다. 각 석물의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仁陵山陵都監儀軌』,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의 도설(圖說)의 설명문에 부기된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록들과 현재 세워져 있는 석물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요컨대, 인릉의 석물은 얼핏 잘 갖추어져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화강암의 종류와 조각수법이 다양한데, 이는 석물들의 제작시기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릉 석물은 이 능을 조성할 당시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 인릉 조성과 관련된 의궤들의 기록에서 참여했던 석수(石手)의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인릉을 천봉할 때는 야장(冶匠)과 각수(刻手)를 제외하고 직접 조각을 담당한 석수의 총인원은 45명이었고, 순원왕후를 합장할 때는 50명이었다. 현릉원(1789)이나 건릉(1800) 조성에 200명이 넘는 석수가 참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sup>35)</sup> 현재 인릉의 석물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석물을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4)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http://heonin.cha.go.kr>).

35) 김이순, 「응릉과 건릉의 석물조각」, 『美術史學報』, 제31집(2008), 81쪽 참조.

<표 4> 인릉 석물 분석 및 조형적 특징

석 물	크 기(척)	재료(실물)	출처	변 형	비 고
문석인	8x4x3	황색조립	구 영릉	조탁	舊 인릉 의례 도설은 금관조복-6.8x2.6x2.2 친봉의례 도설그림은 복두·금관혼합, 도설설명은 금관조복
무석인	9x4x3.5	황색조립	구 영릉	조탁	舊 인릉 의례 - 7.1x3x2.25
혼유석	9.4x5.8x1.5	황색조립	구 영릉	마정	
장명등		백색조립	구 희릉	개석-조탁	舊 인릉 의례 도설은 8각형 친봉의례 도설은 4각형, 실물은 8각형
		황색조립	구 영릉	체석-조탁	
석마	5x4x1.5	황색조립	구 희릉	1점 조탁	1점은 수선화 장식 문양
			새로 조성	3점	3점은 난초류 장식 문양
석양	1856 4.5x3.5x1.4		구 희릉	2점	친봉의례 기록
			구 영릉	1점 조탁	
			새로 조성	1점	
	1857 4.5x3x1.5	백색중립	구 인릉	移用	舊 인릉 의례 - 2.7x1.3x4.5
석호	1856 5x4x1.4		구 영릉	조탁	친봉의례 기록
	1857 4x4x1.5	백색중립	구 인릉	移用	舊 인릉 의례-3.1x1.6x4.9 합장의례 도설 - 草形 장식 없음
망주석	1856 기둥 8		구 희릉	반침 조탁	세호: 친봉의례 -右丞左降 실물 - 左丞右降
			새로 조성	대석	
	1857 기둥 8.2	백색중립	구 인릉	移用	舊 인릉 의례 - 기둥 7.55
면전석	1857 12개		새로 조성		
축석	1857 12개		새로 조성		

\* 동자석주의 재료는 백색세립으로 화강암 종류가 난간석주와 다르며 의례에는 난간석주와 함께 친봉 시 조성한 것으로 기록

\* 『仁陵山陵都監儀軌』 - 1834년(능 완성은 1835년),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 1856년, 『純元王后仁陵山陵 都監儀軌』 - 1857년

2. 석물의 조형적 특징

조선 후기에 작성된 의례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인릉친봉 산릉도감의례』의 석물 관련 기록에서도 <표 5>와 같은 오류가 발견된다. 따라서 석물의 조성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능에 세워져 있는 석물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 의례기록과 실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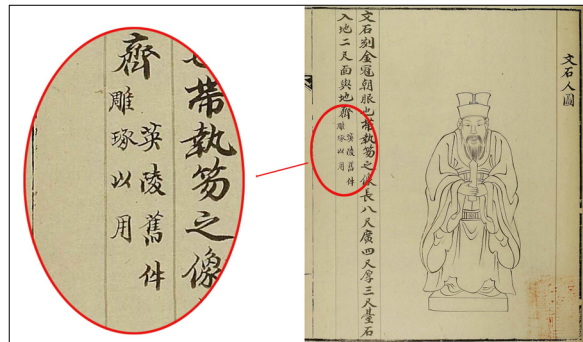
구 분	의 례	실 물
문석인 유형	금관조복	복두공복
문석인 키	248cm(8척)	260cm
장명등	4각형	8각형
망주석 세호	우승좌강	좌승우강

### 1) 문석인

인릉의 문석인은 키가 260cm 정도의 복두공복형이다(圖23). 얼굴이 작은 편이고 표정이 자연스러워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도설에는 구 영릉 석물을 조탁하여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圖24). 실제 석물은 복두공복임에도 불구하고, 도설에 금관조복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림은 복두와 금관의 중간 형태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당시의 기록문화가 이전에 비해 소홀해졌음을 의미한다.



〈圖23〉 문석인, 인릉



〈圖24〉 문석인 圖說,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실제 석물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초기 양식을 갖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흔하지 않은 복두공복형이라는 점 이외에도, 홀을 잡고 있는 손을 위로 들어 홀을 턱에 대고 있는 점, 두발을 모으고 서 있는 점, 옷소매가 정면으로

보이며 차분하게 수직으로 길게 내려온 점, 측면의 신체 굴곡이 유연하게 표현된 점 등은 조선 초기, 특히 1457년에 조성된 덕종(德宗, 1438~1457) 경릉(敬陵)의 문석인(圖25)과 흡사하다. 또한 동쪽과 서쪽의 문석인의 수염을 다르게 표현하여 나이 차이를 둔 점이나 발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꽃모양 장식을 한 점은 건원릉(1408)과 현릉(1452)의 문석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복두의 모양 역시 초기 문석인들과 같은 유형이다. 신체굴곡이 유연하고 입가의 미소는 조선 후기 석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문석인들은 한결같이 홀을 턱에서 떼고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릉 문석인은 조선 후기의 석인상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의 도설에는 오류가 있으나 구 영릉의 문석인을 조탁해서 사용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인릉에 설치된 문석인은 구 영릉 석물로 추정된다.



〈圖25〉 문석인, 덕종 경릉,  
1457년, 서오릉

## 2) 무석인

인릉의 무석인 역시 조선 초기 무석인과 동일한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圖26). 수염으로 동·서측 석인에 나이 차이를 두어 표현하거나 몸에 비해 머리가 작은 석인상의 유형은 조선 초기 석인상의 특징이다. 세부 묘사에서도 원주형(圓冑形) 투구에 구슬모양의 두정(頭釘) 장식



〈圖26〉 무석인, 인릉

을 박았고 드림과 호항(護項)에 찰(札)의 장식이 없으며, 갑옷의 소슬무늬 편찰(片札)

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점은 태종의 현릉 무석인 표현과 흡사하다. 소맷자락 역시 현릉 무석인과 같이 뒤로 날리고, 깃털장식의 귀가리개, 노출된 정강이의 경갑, 칼자루 코등이의 귀면문양 등에서도 조선 초기의 현릉 및 현릉의 무석인과 닮았다. 따라서 무석인 역시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 영릉의 석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석마

현재 인릉에는 4점의 석마가 있다. 그중에 1점은 천봉할 때 구 희릉의 석마를 쓰고 나머지 3점은 새로 제작했다고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인릉에 설치되어 있는 석마 다리 사이에 표현된 초형(草形) 부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점 석마 중에서 1점(서편)의 다리 사이의 문양은 수선화 모양이며 나머지 3점의 석마에는 난초와 불로초가 새겨져 있다(圖27). 16세기 초반의 초형 문양은 수선화 계열이고 난초와 불로초는 융릉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3점은 조선 후기, 즉 1856년 천봉 당시에 새로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sup>36)</sup> 또한 수선화가 새겨진 1점의 석마와 세종대왕기념관 석마의 초형을 비교해보면 서로 닮았고, 석마의 크기에 있어서도 세종대왕기념관 석마가 116x58x163cm(키·폭·길이)이고 인릉 석마는 118x55x160cm로, 오차범위



〈圖27〉 인릉 석마 초형 문양 비교

이내의 수치가기 때문에 동일한 능의 석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인릉의 4점 석마 중에서 한 점과 앞서 언급한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석마는 구 희릉에 배치되었던 석물로 추정된다.

36) 의궤에는 초형(草形)으로 표현되나 효명세자 연경묘 의궤(1830)에서 처음으로 ‘난초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융릉과 건릉의 석물조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앞의 논문, 63~100쪽 참조.



#### 4) 석양과 석호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는 천봉 당시에 석양과 석호를 구 영릉과 구 희릉의 석물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새롭게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기의 석물을 혼용하면서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인지, 1857년에 순원왕후를 합장하면서 파주 교하의 구 인릉(1835)에 설치되었던 석물을 이용(移用)하였다고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 석양(圖28)과 석호(圖29)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석양과 석호의 다리 사이에 용릉과 같은 타입의 불로초와 난초류가 새겨져 있다. 또 석호의 꼬리가 등을 향하여 45도로 올라가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현재 인릉의 석호와 석양은 1835년에 조성된 구 인릉 석물로 파악된다.



〈圖28〉 석양, 인릉



〈圖29〉 석호, 인릉

#### 5) 장명등

현재 인릉에는 개석(蓋石)이 다소 낮은 8각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다(圖30). 그러나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도설에는 4각 장명등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sup>37)</sup> 개석은 구 희릉의 것이고 체석(體石)은 구 영릉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圖31). 실제 장명등과 의궤의 기록과 다를 뿐 아니라, 두 능의 석물을 조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인릉의 장명등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37) 구 인릉 의궤 도설은 8각 장명등이다.



〈圖30〉 장명등, 인릉



〈圖31〉 장명등 도설,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인릉에 있는 8각 장명등의 체석은 격석에 문양을 조각하고 화창을 직사각형으로 뚫은 형식인데, 이는 현재 희릉은 물론 용릉과 건릉의 8각 장명등과도 다른 조선 초기의 타입으로, 의궤의 기록대로 구 영릉이 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인릉의 개



〈圖32〉 인릉 장명등 분석

석을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체석과 결합하여 보면 개석이 낮고 넓은 형식의 장명등이 되는데(圖32), 이러한 형식은 구 희릉보다 9년 앞서 제작된 소혜왕후 경릉(1504) 장명등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인릉 장명등의 개석은 구 희릉의 석물로 추정된다. 짐작컨대, 인릉을 조성하면서 구 영릉의 장명등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개석이 없어졌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에 구 희릉의 개석을 이용(移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인릉 장명등의 개석 상단의 원수(圓首)가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개석 박공 장식이 단순화되어 있는 것은 의궤의 기록대로 구 희릉의 개석을 인릉에 설치하면서 조탁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릉의 장명등은 전체

적으로 조선 초기 양식에 후기 조형 감각이 가미된 형태가 되었다.

크기를 실측해 보면, 세종대왕기념관의 체석은 높이가 약153cm, 화사석(火舍石)의 폭이 87cm이며, 인릉 장명등의 체석은 높이가 180cm이고 화사석 폭이 76cm이다. 그리고 인릉 개석은 폭이 약140cm이고 체석과 닿은 부분이 85cm 정도인데, 세종대왕기념관의 체석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는 개석을 조탁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인릉을 조성할 때 구 영릉의 체석에 구 희릉의 개석을 얹어 장명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세종대왕기념관의 장명등은 개석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 6) 망주석

인릉의 망주석은 세호가 구체적인 동물 모양으로 조각된 조선 후기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圖33). 이는 의궤에 기록된 대로, 순원왕후 합장 시 교하의 인릉 초장지에 설치되었던 석물을 옮겨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호의 방향은 의궤에는 우승좌강(右陞左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좌승우강(左陞右降)으로 조각되어 있다.



〈圖33〉 망주석, 인릉

## 7) 혼유석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 구 영릉의 석상을 새로 갈아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혼유석의 화강암 종류 역시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을 비롯한 다른 구 영릉 석물들과 같기 때문에 의궤의 기록대로 구 영릉의 혼유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圖34〉 고석, 인릉

인릉 고석(圖34)의 조각양식을 보면, 귀면 외곽선이 세종대왕기념관 고석 귀면과 달리 원이 아니라 갈기가 날리는 도철 형상의



로 조각되어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세조 광릉(1468)이나 영릉(1469)의 고석 귀면 표현과 흡사하다. 따라서 의궤에 별도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고석 역시 혼유석과 함께 구 영릉의 석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8) 난간석

난간석 석주는 인릉 천봉 당시에 새로 조성되었다. 석주의 주두 하단에 기하학적인 패턴을 조각하는 형식은 정조 건릉의 형식을 이어 받은 것으로, 조선 후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석주를 받치는 연엽은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중기와 후기의 양식이 혼용되어 있다. 동자석은 화강암의 종류가 백색세립으로 다른 석물과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고찰한 인릉의 문헌기록과 석물 조형적 특징을 종합하면, 현재 인릉 석물은 서로 다른 시기의 석물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석호와 석양, 망주석은 구 인릉의 석물을 옮겨온 것이며 난간석은 인릉을 천봉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그 이외의 석물은 대부분 구 영릉의 석물이다. 특히 왕릉의 주요 석물인 문·무석인, 혼유석과 고석, 그리고 장명등의 체석은 구 영릉 석물이 분명하다. 인릉의 천봉을 결정했을 때는 구 희릉의 석물을 이용(移用)하려 했으나 봉분을 조성하면서 뜻밖에 발견된 구 영릉 석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 영릉 석물의 화강암 품질이 좋고 조각이 정미하고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38)</sup> 부득이한 경우 구 희릉과 구 인릉의 석물을 옮겨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능한 구 영릉의 석물을 인릉 석물에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릉의 문·무석인을 조선 후기 대표 양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려 560여 년 전에 조성된 석물들이지만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화강암이 풍화되지 않았고, 화강암의 질이 좋아 조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각 양식에서 유연한 의습 처리와 인체비례, 입가의 미소는 조선 후기의 미감, 즉 융릉과 건릉 문석인의 자연스런 표현과 견주어도 손색이

38) 山陵都監京師廳以總護使意啓曰今月二十五日傳曰 / 封標近處與禧陵舊基多有前排石儀云量宜移用事分 / 付山陵都監使命下矣封標下舊排石儀已爲現露者 / 石品精美石體壯大磨礱治鍊皆當入用而禧陵舊基前 / 排石儀今方次第取出隨品移用如干石物之或有不足者 / 則新浮石取用之意敢啓傳曰知道.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전교, 철종7년(1856) 3월 26일.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홀을 위로 반짝 들고 있는 자세는 조선 초기 문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석물의 조형적 특징, 의례와 실록의 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구 영릉의 석물로 알려진 세종대왕기념관의 석물은 장경왕후의 구 희릉 석물이고 순조 인릉의 석물 중에서 문·무석인을 비롯한 주요한 석물들이 구 영릉 석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유원의 문집 『임하필기』와 1856년에 작성된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의 기록을 통해, 그간 학계와 문화재청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초상지는 1856년에 이미 훼손되었고 그 자리에 인릉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세종대왕 초상지가 잘못 추정되었고<sup>39)</sup> 그곳에서 나온 석물들이 구 영릉 석물로 간주되면서 지난 30여 년간 조선 왕릉 석물 연구에 오류를 초래했고,<sup>40)</sup> 장경왕후의 구 희릉 석물에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우를 범했다.

구 영릉의 석물로 알려졌던 석물이 구 희릉의 석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석물의 예술성이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왕릉 석물은 단순히 의례용이 아니라 당대의 조각기술은 물론, 사상과 문화,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왕릉의 석물조각은 각각의 고유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 영릉과 구 희릉 석물은 시기적으로 약 70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한 왕릉 석물들의 흐름의 연속선 위에 자리한다. 이는 조각 양식이 어느 한 시대를 건너 뛰어 갑자기 탄생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39) 발굴을 주도한 김구진 교수의 논문을 보면 당시 발굴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을 꼼꼼히 살피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굴된 지석에 세종대왕 능이었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소현왕후의 지석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대왕 지석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김구진, 앞의 논문(1975), 64쪽.

40) 대표적인 예로, 배윤수, 「조선시대 왕릉 石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43쪽;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80~81쪽 등이 있으며, 같은 오류가 최근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출판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난영, 「후릉(厚陵)의 조성과 양식적 특징」,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개수도감의궤』(문화재연구소, 2008), 46~48쪽.

실제 구 영릉 석물의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문화재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호로 일괄 지정된 ‘구 영릉’ 석물의 지정 명칭을 재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을 단순히 해제할 것이 아니라 신도비를 제외한 석물들은 ‘구 희릉 석물’로 그 귀속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앞으로 인릉의 사초지 부근에서 세종대왕 초장지를 발굴한다면 이유원이 목격한 석실 사신도의 흔적은 물론, 12지신상이 새겨 있을 병풍석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병풍석은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놓인 조선왕조 최초의 왕릉, 신덕왕후 정릉의 병풍석과 함께 조선 초기 석물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정조대왕,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李肯翬 編, 『練藜室記述』. 제4권.

『국역 대동야승』 3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규장각소장 (<http://kyujanggak.snu.ac.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heonin.cha.go.kr>).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sejongkorea.org>).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 홈페이지(<http://sca.visitseoul.net/korean>).

《연합뉴스》.

김구진, 「구영릉 신도비와 석물에 대하여」. 『역사교육』 18집, 1975, 33~85쪽.

김구진, 「조선초기 왕릉제도: 세종대왕 구영릉 유적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5호, 1979, 41~84쪽.

김이순, 「용릉과 건릉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 31집, 2008, 63~100쪽.

류재복, 「구 영릉지의 위치와 풍수입지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배운수, 「조선시대 왕릉 石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안경호, 「세종대왕 초장지(舊英陵)에 대한 재론(再論)」. 『정신문화연구』 31권 2호, 2008, 151~171쪽.

이난영, 「후릉(厚陵)의 조성과 양식적 특징」,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개수도감의궤』.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5~51쪽.

이유원, 『국역 굴산 임하필기』 6. 한국학술정보, 2008.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서울: 대원사, 2000.

###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 놓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석물 12점과 인릉 석물의 귀속에 대한 연구이다. 세종대왕기념관의 석물은 1973~4년에 현인릉 능역 안의 세종대왕 초상지로 간주되던 장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놓이게 되었다. 또 어느 왕릉 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입체감과 균형 잡힌 조형미를 보여 주기 때문에 그간 별다른 의심 없이 세종대왕 구 영릉 석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금까지 알려진 세종대왕 초상지는 구 희릉 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석물의 조형적 특징과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기록을 통해 세종대왕기념관 경내에 있는 석물은 구 영릉이 아닌 구 희릉 석물임을 밝혔다. 동시에 실제 구 영릉의 문·무석인을 비롯한 중요한 석물은 순조 인릉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석물의 조각양식 분석과 인릉 조성 관련 의궤의 기록을 통해 규명했다. 본 연구의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호는 ‘구 영릉 석물’이 아닌 ‘구 희릉 석물’로 재지정 되어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09. 1. 12.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주제어(keyword) : 구 영릉(old Yeongneung), 구 희릉(old Huineung) 세종(King Sejong), 왕릉 석물(royal tomb sculpture), 인릉(illeung).